

소개하는 글 INTRODUCTION

최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방사능 누출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관심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은 해방 이후 최고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이 시점에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화석연료의 고갈은 에너지사용에 대한 세계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사용 총량에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 방안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가 고단열, 고기밀, 열회수환기시스템 기술을 통해 난방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인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입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 건축사회와 안산YMCA에서는 패시브하우스 건축기술로 획기적인 에너지 감축을 이루어가는 북유럽 국가들 특히 오스트리아의 선진설계기법을 전시회와 토론회, 강연회 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관내 대학교 한양대학교,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서울예술대학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우리 지역에 친환경 건축문화의 확산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합니다.

행사개요 ABOUT US

행사명 TITLE	한국·오스트리아 지속가능 안산국제건축전 Austria-Korea Future Building Solutions Architecture Exhibitions in Ansan
장소 VENUE	안산문화예술의전당 ANSAN ARTS CENTER
행사기간 DATES	2011. 6. 16(목)~2011. 6. 18(토) June 16(Thu)~June 18(Sat)
개막식 OPENING CEREMONY	2011. 6. 16(목) June 16(Thu)
주최 AUSPICES	안산시건축사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san Branch 안산YMCA, 안산의제21 한양대학교친환경건축연구센터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서울예술대학
주관 SUPERVISOR	In-progress Architecture, 한국YMCA전국연맹
후원 SUPPORTER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안산교육지원청
협찬 SPONSOR	대우건설, (주)이에이그룹, 선창ITS 대화이앤씨건설

행사일정 SCHEDULE

일시	행사명	내용	
6.16	10:10	개막공연	
	10:30	개막식	사회자
		• 국민오례	사회자
		• 내빈소개	김환인안산시 건축사회장
		• 대화사	윤기종안산YMCA 이사장
		• 인사말	안산시장 / 시의장 / 경기도건축사회장
	• 축사	오스트리아 건축사 대표	
	• 격려사		
	11:10	친환경 건축협약	안산시장 추진기관 공동대표
	11:25	개막강연회	오스트리아 건축사
12:00	전시회 개막 커팅	안산시장, 의장, 국회의원, 추진기관 공동	
12:30	오찬	안산시 건축사회 주관	
15:00	작품설명회	오스트리아 건축사 * 안산건축사	
19:00	저녁민찬/간담회	안산YMCA 이사회 주관	
6.17	11:00	작품설명회	오스트리아 건축사 * 안산건축사
	12:00	오찬	
	14:00	심포지움	인사말 : 마이클(안산의제21 공동대표)
	17:00		권영호(안산시 건축사회 직전회장)
	15:00	작품설명회	오스트리아 건축사 * 안산건축사
	18:00	저녁민찬 및 시민단체 간담회	안산의제21 주관
	6.17	11:00	작품설명회
12:00		오찬	
16:00		시상식/폐회식	안산YMCA, 안산시 건축사회



행사장 약도



문의 안산시 건축사회 ☎031-480-9130 안산YMCA ☎031-410-3570

한국·오스트리아

지속가능 안산 국제 건축전

Austria-Korea Future Building Solutions
Architecture Exhibitions in ANSAN

2011.06.16(목)~06.18(토)

안산 예술의 전당 OPEN 06/16 PM 12:00

architektur in progress | www.ak-sus.org

Austria – Architect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는 2010년 5월현재까지 EU전체에 약 2만채 가량지어졌는데 독일이 약 12,500채, 오스트리아가 4,900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독일이 인구 100만명당 150채, 오스트리아는 인구 100만명당 600채 정도로 독일보다 4배가 많다. 오스트리아가 밀집도에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셈이다. 또한 주택 유형별로는 독일은 70%가 단독주택인 반면, 오스트리아는 70%가 공동주택, 사무실 등이 차지하고 있어 주택유형에 있어서도 한국사회가 가장 벤치마킹(benchmarking)할만한 곳이다.



Korea – Architect

오스트리아· 독일 등 에너지 절약 선진국에서는 패시브하우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난방에너지 요구량 15kwh/m2 · 년 으로 우리가 흔히 1.5L하우스라고 부르는 집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가 대략 10L정도, 단독주택이 20L정도를 소비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우리도 에너지절약 건축이 어려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적정수준의 단열재를 정밀 시공하더라도 난방연료 소비량은 60%나 감소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기술로 설계, 시공된 저에너지 건축물의 완공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Ansan – Architect

안산시는 1976년 계획도시로 출발하여 구도심은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공간적 기능과 물리적 형태는 시대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개발 초기에 건축된 건물들은 모두 노후화 시기에 접어들어 에너지 과다 소비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건축물로 전락할 위기이다. 이에 안산건축사회는 지속가능 도시 안산을 위해 에너지 절약 설계를 적용하고 신축건물만 아니라 리모델링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움

13:5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 마의금 (안산의제21 공동대표) 축 사 : 권영호 (안산시 건축사회 직전회장)
14:10~14:50	EU에너지효율과 지속가능건축의 현황과 정책방향 Volker Dienst (In-Progress Architecture 대표)
14:50~15:10	주제 발표 국내외의 지속가능건축도시 개발현황과 과제 태성호 교수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15:10~15:30	경기도 건물에너지 현황 및 친환경 건축 활성화 방안 제안 고재경 박사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15:30~15:40	휴식
15:40~16:10	주제 토론 사 회 : 신윤관 (푸른경기21 사무처장) 토론자 : 주진형 교수 (안산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윤기준 건축사 (안산시건축사회) 김경민 (안산의제21 도시교통분과 총무) 김경환 과장 (안산시건축과)
16:10~16:50	질의응답
17:00	폐회식

University

최근 세계 건축계의 방향은 지속가능 친환경 건축이 지배하고 있는데 미래의 지속가능 친환경건축을 이끌어갈 차세대 건축가들의 작품은 한국·오스트리아 지속가능 안산국제전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몇 개월의 준비기간 동안에 더 나아가 실무에서 친환경건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며 앞선 친환경 설계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번 전시는 한양대학교,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서울예술대에서 참가하였습니다.



행사장 안내

